

학회 회원 여러분,

최근 COVID-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젠 각 병원의 안전만을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과 환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등을 포함하여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병원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병원들이 포화된 상태에서 이미 폐렴이 진단된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학회원들께서 이러한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일을 분담하고 협력하며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존경심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5월 8-9일로 예정되었던 저희 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불가피하게 6월 25-26일로 연기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3월초에 예정된 미국알레르기면역학회(AAAAI)에 참석하기로 예정된 학회원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있어 이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3월로 예정되었던 개원의 교육 강좌도 9월 27일로 변경하여 여러 회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회의와 심포지엄은 현 상황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회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회원 여러분, COVID-19 사태도 굳건히 맞서 싸우면 언젠가는 지나 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서로를 위해 격려와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회는 알레르기, 호흡기 진료를 보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환자진료를 위해 각 병의원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국가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일선 의료현장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학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오재원 배상